

## 실현된 유토피아?

## 1871년 파리코뮌의 현재성

현재열

## 들어가며

1871년에 한 사건이 있었다. 3월 18일에서 5월 28일까지 2달 좀 더 되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파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파리인들이 자신이 해방된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1871년 파리코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그때 이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렸다. 맑스에서 아렌트까지 수많은 대가들이 중요한 의미부여를 했고, 레닌이나 게링 같은 이들은 현실의 실천을 위한 준거점으로 또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실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언급들은 거의 다 해석일 뿐 실제로 파리코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코뮌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서였다.

사실 코뮌나르(les Communards)<sup>1)</sup>의 봉기는 노동계급이나 무슨 주의자 같은 어떤 특정집단이 계획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1870-1871년의 프랑스·프

■ 1) 코뮌나르는 파리코뮌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한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당대에는 이 말보다 코뮌네(les Communeux)라는 호칭을 더 많이 썼는데, 둘 다 당시의 의미로는 경멸적인 뜻이 담겨있었다.

로이센전쟁 동안 지배집단이 보여준 무능과 배신에 대한 애국주의적 분노와 그에 이은 군주제적 반동의 위기에 대한 강력한 공화주의적 대응에서 발생했다.<sup>2)</sup> 봉기 자체도 격렬한 전투나 거창한 음모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어설플 정부군의 작전 실패와 맞물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sup>3)</sup> 봉기자들이 파리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도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부 세력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파리에서 철수했기 때문이었다. 즉 1871년 3월 18일 파리의 권력을 갑자기 차지하게 되고 나아가 3월 26일 코뮌 선거를 통해 파리의 코뮌정부를 선언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전 계획도 없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었다.

유토피아라는 것이 “아직 없는 것”,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완성의 현실태”이고, 따라서 유토피아의 추구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계획하는 사고의 실험이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sup>4)</sup> 파리코뮌의 발생과정은 그다지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계획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반드시 있었어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1871년의 파리코뮌은 그때 이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 의해 되새겨지고 불러내어졌다. 최근에도 미국의 진보적 역사가 하워드 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상사회의 사례를 묻는 하버드대 학생의 질

■ 2) 그래서 대부분의 파리코뮌의 역사서들은 파리코뮌이란 사건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정도 앞서 제2제국 후반부부터 기술하고 있다. 즉 제2제국 후반부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누적되어 발생시킨 결과가 파리코뮌이라는 것이다.

■ 3) 1871년 3월 17일과 18일 밤 사이에 파리 시민의 모금으로 구입한 파리 시민의 대포를 탈취하려는 정부군의 시도가 실패하고 이를 막으려는 파리 시민과 정부군 사이에 일련의 대치와 소규모 충돌들이 발생하면서, 3월 18일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의 사격은 피갈 광장에서만 일어났고 대부분 사격 명령을 거부한 정부군과 파리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상황(fraternization)이 벌어졌다. 인명피해도 그리 크지 않아 몽마르트르의 대포를 지키던 국민방위군 초병 한 명이 부상당해 며칠 뒤 사망했고, 몽마르트르를 습격한 정부군 장군 2명이 18일 새벽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9구의 피갈 광장에서는 정부군 장교 1명과 포수 3명, 말 한 마리가 죽은 정도였다.

■ 4) 김영한, 『유토피아주의』,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운동—르네상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지식산업사, 1994, 6.

문에 역사에서 “홍내를 낼 가치가 있는” 사회 중 하나로 1871년의 파리코뮌을 들면서, 그것을 “진정한 민주주의에 아주 가까운 걸 이룩했다고 하였다.”<sup>5)</sup>

유토피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과 ‘좋은 곳’이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의미에서 본다면, 1871년 파리코뮌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파리코뮌은 일어났던 일이고,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파리코뮌을 이상사회의 사례로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의 다른 의미와 관련된 듯하다. 즉 ‘좋은 곳’이란 의미에서일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좋았던 곳’ 이리라. 과연 1871년의 파리코뮌은 왜 ‘좋은 곳’일까.

이하에서는 1871년 파리코뮌이 누구에 의해 생겼고, 72일의 존속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서 150년도 더 전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누구의 혁명이었나?

1871년 3월 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프랑스 정부군은 파리에 대해 중요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1870년 7월에 시작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제국붕괴 후 구성된 임시국방정부의 반년에 걸친 끈질긴 저항에도 결국 프랑스의 패배로 끝이 났다. 1871년 1월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었고, 2월에는 새로운 국민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sup>6)</sup> 지방의 군주주의자들이 장악한 이 의회는 7월 왕정에서 내무장관을 지냈고 성향이 의심스러운 온건 공화주의자인 티

---

■ 5) 브라이언 파머 외 편, 『오늘의 세계적 가치-세계의 지식인 16인과 하버드대생의 대화』, 신기섭 옮김, 문예출판사, 2007, 22-23.

■ 6) 1871년 2월 8일 열린 국민의회 선거에서 오랜 전쟁에 지친 지방의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오를레앙주의자, 부르봉정통왕당과 등 다양한 군주주의자들을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반면 파리와 리옹, 마르세이유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화주의자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들은 의회의 소수파를 이루었다.

에르(Thiers)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었다. 이 정부는 오랜 전쟁에 지친, 특히 6개월간의 처절한 포위전을 치른 파리 시민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정책으로 곧 파리 시민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부에게 골칫거리는 전쟁 동안 파리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구입한 대포였다. 이 대포를 파리 시민들은 공화국 방어의 상징으로 여겼고, 휴전이 성립된 후 그 휴전을 인정하지 않는 제스처로 2월 말 파리 동북부 민중구역의 고지대로 이동시켰다. 3월 18일 새벽 프랑스 정부군이 파리에서 전개한 작전은 바로 이 대포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작전상의 여러 실수로 인해 이 탈취작전은 파리 시민과 정부군의 대치로 결과하였고, 일부 정부군이 사격명령을 거부하고 시민과 합류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3월 18일 오후 특별한 교전 없이 파리의 ‘국민방위군 공화주의 동맹’ 중앙위원회가 관리들이 철수하여 텅 비어버린 파리 시청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1871년 파리코뮌은 시작된 것이다.

파리시청을 장악한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당시 파리의 유일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파리코뮌 선거를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3월 26일 코뮌정부가 구성되자 그 자리를 물러났다. 이후 72일간 지속된 코뮌 하의 파리에서 코뮌을 지지하고 코뮌을 방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sup>8)</sup> 1871년 3월 21일자 『공보』(Journal officiel)에서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3월 18일의 봉기를 설명하면서, “지배계급의 무능과 배반 속에서 수도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스스로 공적 사안의 지휘권을 장악함으로써 상황

■ 7) 국민방위군은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시민군으로 그 이래 여러 부침을 겪어왔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와중에 임시국방정부의 주도로 재건된 파리 국민방위군은 254개 대대 30만 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이 국민방위군은 1871년에 들어 휴전과 국민의회 선거라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월과 3월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열어 1871년 3월 15일 215개 대대가 참여하는 ‘국민방위군 공화주의 동맹’을 결성하고 최고집행기관으로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 중앙위원회에는 상당수의 급진적 인사들과 제1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참여했고, 이들 중 여러 명이 나중에 코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8) 3월 18일 이후 티에르의 철수명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관리들이 모두 파리를 떠난 후 이를 따라 상당수의 파리인들이 파리를 떠났다. 당시 파리 인구가 120만이 넘었고, 이중 30만 명 정도가 유권자였는데, 코뮌 선거에 참여한 사람 수는 20만 명 정도였다.

을 구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천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은 누구였을까.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동자를 떠올릴 것이고, 그렇다면 파리코뮌은 ‘노동자혁명’으로 연상될 것이다. 물론 파리코뮌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 코뮌 이후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1만여 명 중 과반수 이상이 노동자층이었고, 코뮌정부를 구성한 코뮌 의원 중 30퍼센트 정도가 노동자들이었다.<sup>9)</sup> 또한 나중에 살펴볼 코뮌의 사회입법 중 상당수가 노동자의 일상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져 노동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당시 프랑스에서 막 산업화를 거치고 있던 자본주의의 산물이었다고, 따라서 상퀼로트적 수공업자와 공장노동자의 중간적 존재였다. 게다가 상당수의 비노동자층의 참여 역시 인정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높은 코뮌 지지 열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에서 흔히 갖게 되는 젠더적 관념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들의 의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1871년 무렵에 특정한 사회계층을 지칭하는 의미로서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 시기에 프롤레타리아는 프랑스혁명 이래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 상정되어온 ‘인민’(People)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또한 이 인민은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위해 ‘시민’(citoyen)으로 불리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프롤레타리아’란 사실상 ‘인민’ 또는 ‘시민’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파리코뮌을 지지하여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은 파리의 인민이었고, 이들은 ‘시민’으로서 코뮌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던 것이다.<sup>10)</sup>

---

■ 9) ‘노동자혁명’이라는 성격 규정이 단순히 참여자 중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부 구성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노동자혁명’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할 수나 있는 것일까.

■ 10) 대표적인 파리코뮌의 역사가인 자크 루즈리(Jacques Rougerie)는 ‘인민’이 “코뮌나르의 가장 포괄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코뮌나르들은 제2제국 말기의 공개집회 때부터 스스로를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렀다.

## 무엇을 하였는가?

3월 26일 성립된 코뮌정부는 5월 말의 ‘피의 주간’ 때까지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 사이 파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코뮌나르들은 목숨까지 던져가며 코뮌을 지키려 하였는가?<sup>11)</sup> 여기서 이에 대한 답을 모두 주기는 어렵고,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 1) 시민민주주의

무엇보다 1871년의 파리코뮌에서 주목받는 것은, 하워드 진이 말했듯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아주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에서 관철된 원칙은 인민주권의 원칙이었다. 3월 18일 파리시청을 장악한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3월 22일의 유권자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런 인민주권의 원칙을 이미 명확히 하였다. “여론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받고 감시받고 논의되는 자치회의(l'assemblée municipale)의 구성원들은 유권자에 의해 해임가능하고, 유권자에 의해 평가되며,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루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때, 오직 그때에야 공화국은 더 이상 질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주권은 “민중 대중을 포괄하는 개인들의 총체인 인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인민주권 하에서는 인민을 구성하는 각 시민이 주권 행사에 참가하는 고유한 권리를 갖고 직접민주제가 정치의 원칙이 된다. 대표제를 채택하

---

■ 11) 코뮌의 마지막 일주일인 ‘피의 주간’에 베르사이유군과의 전투에 참여한 코뮌나르는 약 2만 내지 3만 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크게 적은 수이지만, 이미 전투의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은 걸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코뮌에 대한 대표적 역사서인 『1871년 코뮌의 역사』(*Histoire de la Commune de 1871*)를 쓴 리싸가레(P.-O. Lissagaray)는 “집단지살”에 가까웠다고 평한다.

■ 12) René Rémond, *Introduction à l'histoire de notre temps*, t. 2 (Paris: Seuil, 1974), 53.

는 경우에도 그것은 직접민주제를 대신하는 대표제로서 대표는 당연히 인민의 의사의 분포상태를 대표부의 구성에 공평하게 반영하는 보통선거제도로 선발되어 인민 또는 그 단위의 의사에 구속되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인민주권 원리에 기초하면 대표들은 인민의 수임자에 불과했다. 코뮌나르들은 코뮌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코뮌 의원들을 의원(députés)이나 대표자(représentants)로 보지 않고 강제위임을 받은 사람인 수임자(mandataires)로 보았다. 대표자들은 시민의 특정한 바깥(강제위임)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수임자일 뿐이었다. 코뮌정부의 선거를 위해 나온 11구의 선거벽보는 이를 잘 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란 “인민이 조직적인 직접 보통선거로 해임 가능한 수임자들을 임명하고, 이 수임자들로 이루어진 전국적 공회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다. 3월 29일 코뮌정부가 마련한 코뮌 헌법의 ‘초안’ 역시 인민주권 원칙을 이렇게 밝힌다. “본질적으로 인민주권에 기반을 둔 코뮌의 권력은 언제나 인민주권의 성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당신들(파리시민)의 코뮌들은 자기 결정의 최종적인 동기를 당신들에게서만 끌어와야 한다.”

해임 가능하고, 강제위임을 통해 구속받는 코뮌 의원들은 진정한 “대중의 도구”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여있었다. 조합회의(Chambres syndicales), 클럽(Clubs), 여성위원회(Comités de femmes), 언론 등이 강력한 압력을 유지했는데, 11구의 니콜라 데 상(Nicolas-des-Champs) 교회에서 열린 클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인민이여, 자신의 공개집회와 언론을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라.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을 압박하라. 그래야지 그들은 혁명적 경로에서 결코 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야간 노동의 폐지를 획득한 제빵 노동자들이 코뮌정부에 감사하기 위해 파리 시청으로 갔을 때, 클럽의 기관지였던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인민은 자기 의무를 다한 수임자들에게 감사해선 안 된다. … 왜냐하면 인민의 대표자들은 의무를 다한 것이지 도움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인민주권 원칙 하에서 코뮌나르들은 대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결사에 참여하여 자기 의사를 밝히고 행동하는 것을 더 중요

하게 여겼다. 그래서 특히 발달한 것이 클럽이었다. 클럽은 원래 제2제국 말기 집회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면서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 공개집회(réunion publique)에서 시작된 것이다. 클럽은 파리 전역에 산재해 있었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 장소(주로 교회)를 마련하여 집회를 열었다. 클럽 회원의 자격은 따로 없었고, 인접한 곳에 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권위의 상징인 교회를 주로 빌려 집회를 열었으므로 일정한 권위의 전복 기능까지 수행한 클럽은 시민들의 직접적 의견개진을 통해 중요 안건을 결정하고 이를 코뮌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이루어진 파리코뮌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 능동적인 시민권(citoyenneté active)에 근거한 직접 민주주의였다.<sup>13)</sup>

## 2) 노동자 아쏘시아시옹(association)

경제 분야에서도 파리코뮌은 민주적 원칙 하에서 새로운 경제 원리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 4월 초부터 시작된 내전과 여러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이런 경제적 혁신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례들만으로도 그 단초와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월 3일 루브르(Louvre) 무기수선공장은 스스로 자주관리 규약을 마련했는데, “코뮌에 가까운 사람들”로 대표를 임명하고 이 대표는 노동자의 수임자로 여겨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해임 가능하였다. 이 대표는 공장장, 작업반장들, 각 작업반 대표자들로 구성된 노동자평의회에 종속되었고 이곳에 매일 보고해야 했다. 노동자평의회는 매일 소집되어 아래로부터의 보고나 제안을 듣고 내일의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업반별 대표들은 2주에 한번씩 선출되었고, 자기 작업반에 평의회

---

■ 13) 인민주권 원리는 국민방위군에도 적용되었다. 국방 역시 인민의 주권행사였기에, 국민방위군의 조직도 인민주권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각 대대의 지휘관들은 수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방위군 병사들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 가능하였다.

의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작업반의 의사를 평의회에 전달할 의무를 지냈다. 코뮌 정부 차원에서도 4월 16일 “포기된 작업장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파리 시내에 경영주가 도망쳐 방치된 작업장을 노동자들이 접수하고 스스로 아쑨시아시옹을 꾸려 경영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5월 중순까지 약 43개의 아쑨시아시옹이 꾸러지고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코뮌의 여성조직인 ‘여성동맹’(l'Union des Femmes)<sup>14)</sup>의 주도로 여러 아쑨시아시옹들이 결성되어 작업장을 경영하였고, 5월 말 이런 아쑨시아시옹들이 결집하여 ‘여성 노동자 생산 아쑨시아시옹 연합’을 결성하였다.

1871년의 파리코뮌은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의 결사를 생산 아쑨시아시옹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코뮌 하의 아쑨시아시옹들은 언제나 생산현장의 구성원들의 의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 3) 여성해방을 향해

코뮌의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룬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3월 18일 이래 무대의 전면에 서있었다. 예컨대 3월 18일 정부군의 습격을 최초로 파리 전역에 알린 사람도 여성(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이었다. 쥘 발레스(Jules Vallès)는 1871년 4월 12일자 『징벌자』(*Le Vengeur*)에서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썼다. “나는 세 개의 혁명을 보았고, 처음으로 나는 여성이, 여성과 아이들이 결연히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 이 혁명은 바로 그들의 것인 듯하였고, 혁명을 방어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미래를 방어하는 것 같았다.”

파리코뮌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경제

---

■ 14) 정식 명칭이 ‘파리의 방어와 부상자 간호를 위한 여성동맹’인 이 조직은 파리코뮌 시기 대표적인 여성조직으로 회원 수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코뮌의 핵심적인 여성 활동가들이 대부분 이 조직에 참여해 활동했다.

적 불만의 해결을 추구한 것이 있고, 다음으로 혁명적 선동과 내부 적에 대한 감시 활동이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군사적 역할의 추구 및 행사, 네 번째로는 시민권의 추구 및 행사였다. 1870년부터 계속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경제적 아쓰아시아시옹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세 부분이었다. 이 세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한 가지, 즉 시민권의 행사로 귀결되는 것들이었다. 코뮌의 여성들(코뮌나르드[les Communardes])은 총을 차고 다녔으며, 국민방위군으로서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였다. 또한 클럽을 비롯한 각종 결사체에서 적극적 활동을 통해 코뮌정부의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자 하였다. 파리코뮌 시기 총은 시민권의 상징이었다.<sup>15)</sup> 여성들은 이런 총을 지니고 다니며 배신자나 첩자로 의심되는 남자들을 직접 색출하여 무력 행사의 위협을 가했다. 나아가 그들은 국방을 시민권 행사의 핵심요소로 여기고 여성들의 전투부대를 조직하기까지 하였다. 5월 12일 12구의 ‘여성자원병중대’의 행진이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이런 전투부대들의 창설에 대한 증언이 남아있다. 특히 ‘피의 주간’에 활약한 여성 전투부대들의 활동상은 코뮌의 역사에서 코뮌나르드들이 가진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5월 23일 블랑슈 광장(place Blanche)의 전투를 들 수 있는데, 약 150명 정도의 조직적인 여성 부대가 “국민방위군 제복을 입고 붉은 스카프를 맨 채” 이 광장을 사수했다고 한다.

시민권의 완전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리코뮌의 여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논란거리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선거권이 없었고, 코뮌 의원이나 주요 고위 공직에 전혀 참여치 못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인민주권 원리에 기초해서 본다면, 여성들이 선거권이 없거나 주요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쟁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그런 권

---

■ 15) 총이 시민권의 상징이 된 것은 이미 임시국방정부 하에서 국민방위군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코뮌 이후 의회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인은 그 시기에 파리에 약 30만 정의 총이 배포되었고 “총을 지닌 자만이 시민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리에 대한 요구를 유보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성들은 클럽이나 각종 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코뮌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코뮌정부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 일반적이었던 전통적인 젠더 개념을 넘어서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 계획은 여성을 미신과 반혁명의 중추로 여겨진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들은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임금을 획득하였고 수많은 자주관리 작업장들을 창설하였다. 몇몇 구역들에선 제1인터내셔널에 속한 코뮌 의원들이 여성들을 자치 행정에 참여시켰다. 숨 막힐 듯한 “도덕 질서”(l'ordre moral)가 지배하던 이 시기에 코뮌은 결혼 외적으로 이루어진 가족(내연관계, 사생아)을 최초로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유결혼(l'union libre, 법에 구애받지 않는 결혼)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코뮌은 “타인에 의한 인간의 상업적 착취”의 한 형태로 여겨진 매춘을 금지하였다.

이런 여성들의 활동을 뒷받침한 대표적인 여성 조직은 앞서 언급한 ‘여성동맹’으로, 약 1,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이 동맹은 가히 프랑스에서 최초의 대중적인 여성운동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여성동맹’을 이끈 주역은 20살의 러시아 귀족 출신 혁명가 엘리자베트 드미트리예프(Elisabeth Dmitrieff)<sup>16)</sup>와 25살의 부르타뉴 출신 여성 제본노동자 나탈리 르멜(Nathalie Le Mel)이었다.

#### 4) 외국인들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 민족주의로 더럽혀진 오늘날에 코뮌은 맑스가 1848년 『공산주의당 선언』(*Manifesto communiste*)의 말미에 새겨놓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경구를 구현하고 있다.

---

■ 16) 망명한 러시아 귀족출신 여성 엘리자베트 드미트리예프는 원래 런던에서 제1인터내셔널 활동을 수행했는데, 3월 18일 직후 제1인터내셔널 총평의회 지시를 받아 파리로 넘어왔다. 드미트리예프라는 남성 이름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본명은 엘리자베타 루키니치나 쿠슈레비(Elisavjeta Loukinitchna Koucheleva)였다.

많은 외국인들이 코뮌에 참여하였다. 특히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출신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가리발디군 병사들(Garibaldiens) 그리고 혁명가들이 파리코뮌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했다. 몇몇 외국인들은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보석세공 노동자인 헝가리 출신 유태인 레오 프랑켈(Léo Frankel)은 코뮌 의원에 선출되어 코뮌정부의 구성원이 되었다. 1871년 3월 30일 선거위원회는 프랑켈의 선출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코뮌의 깃발은 보편공화국(La République universelle)의 깃발을 고려하면서, 모든 도시가 자신에게 봉사하는 외국인에게 시민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서…위원회는 외국인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신들에게 시민 프랑켈의 인정을 제안한다.”

레오 프랑켈은 코뮌정부의 노동과 교환위원회에 들어가 4월 16일의 포기된 작업장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코뮌의 사회적 작업 전체를 이끌었다. 한편 폴란드인 장군들인 돔브로프스키(Dombrowski)와 프로블레스키(Wroblewski)는 코뮌군 사령관으로서 군대의 지휘를 맡았다.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트 드미트리예프가 대표적인 여성조직인 ‘여성동맹’을 지도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 5) 그 외의 업적들

짧은 기간밖에 존속하지 않았고 4월 초 내전의 개시 이래 군사적인 비상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코뮌정부가 이룬 일들은 아주 풍부했다. 파리코뮌은 19세기 프랑스 노동운동의 열망인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자의 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다. “공동의 행복”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정치사회에 부여한 1793년의 헌법에 충실했던 파리코뮌은 스스로 “사회공화국”(La Sociale)이 되고자 했다. 민중의 열망에 부응하여, 코뮌은 야간 노동을 폐지하고, 임금에 대해 부과된 벌금과 압류를 금지했으며, 실업을 없애려 애썼고, 세입자의 추방을 금지했으며(즉 다음 한 분기의 집세를 면제해주었으며), 빈집에 대한 징발권을 행사했다.

군대는 국민방위군, 즉 자신의 장교와 하사관을 선출하는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되었다. 코뮌은 사법 관련 업무를 무료로 하여 변호의 자유를 확립했고, 역시

선출되고 해임 가능한 관리들과 사법관들의 정치적 서약을 폐지했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킨 코뮌은 비종교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창안하였고, 소녀를 포함하는 직업교육을 시행했으며, 교육개혁에 착수하였다. 민주적으로 교육문제를 논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개혁운동을 수행한 ‘신교육협회’(la Société pour l'Education nouvelle)의 회원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파리코뮌은 또한 민중교육에서도 선구적이었다. 코뮌정부는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강좌(cours publics)를 열었는데, 이 강좌를 루이즈 미셸은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이들의 열기에 부응하여 도처에서 강좌가 열렸다. 거기서는 예술, 과학, 문학, 발명을 한꺼번에 배우고자 했고, 생기가 불타올랐다. 사람들은 서둘러 낡은 세계에서 빠져 나왔다.” 코뮌정부는 도서관과 박물관, 극장을 다시 열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툴리리 궁에서 열린 무료 콘서트들은 대만원이었다. 민중문화의 이런 개화 속에서 (쿠르베, 도미에, 마네, 달루, 포티에 등이 함께한) ‘미술가 동맹’(la Fédération des Artistes)이 결성되어 파리코뮌의 문화정책을 이끌었다. 미술가 동맹은 자신의 강령의 서두에서 “모든 정부의 감시와 모든 특권을 제거한 예술의 자유로운 확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 코뮌은 죽지 않는다!

파리코뮌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 ‘피의 주간’에 치열한 전투 속에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비전투원인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살해되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3만에서 4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3만 6,000명이 체포되었다. 그 중 1만 여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4천 586명이 프랑스의 대표적 유형식민지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로 유형당했다.

그렇지만 으젠느 포티에(Eugène Pottier)가 노래했듯이, “아무리 그래도, 코뮌은 죽지 않는다.” 파리 코뮌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던 빅토르 위고(Victor Hugo)도 코뮌의 붕괴 이후 같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땅에는

시신이 즐비하지만, 사상은 끄덕없이 서있네.”

위에서 얘기한 파리코뮌의 모습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제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파리코뮌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실제로 코뮌을 지지한 사람들이 행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파리코뮌은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이었고, 곧 전개될 미래사회의 시작점이었다. 그래서 1871년의 파리코뮌은 유토피아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삶속에서 자유를 향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후대인들은 이런 파리코뮌의 모습에서 자신의 꿈을 유토피아가 아닌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1873년의 카르타고 노바(Carthagène; Carthago Nova) 코뮌에서 1917년 러시아혁명과 1918년 독일의 스파르타쿠스 혁명, 1927년의 광둥 코뮌, 1968년 5월 혁명 그리고 오늘날의 치아파스 주의 반란까지. 이런 후대의 코뮌들속에서 코뮌은 언제나 여전히 살아있다. 본능적으로 민주적인 코뮌은 그 당시의 언어로 지금도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하려 했기에, 코뮌이 보여준 모습들은 언제나 현재성을 띠고 있다.

프랑스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1871년의 파리코뮌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 볼 수가 없다. 파리코뮌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사의 일련의 혁명적 격동의 말미에 해당하며, 여러 부침 속에서 최종적으로 공화국의 정체를 갖추게 되는 프랑스 정치사의 한 고리일 것이다. 파리코뮌 자체가 19세기 혁명 전통 속에 있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파리코뮌은 “마지막 19세기 혁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파리코뮌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동시에 파리코뮌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코뮌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871년의 파리코뮌은 결코 과거의 것일 수만은 없다. “코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자본의 힘이 전지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개인적 성공에 대한 숭배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잠식하는, 끊임없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광신이 횡행하는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오늘의 세계에서, ‘인민’이라 부르든 ‘시민’이라 부르든 ‘99퍼센트’라 부르든 새로운 저항의 움

직임이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1871년 파리코뮌은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도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기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적 원칙 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들, 그것이야말로 오늘 날에 살아있는 파리코뮌일 것이다.

한국해양대학교 HK연구교수, varlin@hanmail.net